

KIA 앤더슨, 첫 실전 완벽투... 시즌 기대감 '쑥쑥'

삼성과 연습경기 2이닝 무실점
메디나 2이닝 3피안타 1실점
윤영철 2이닝 1피안타 무실점
김도영 역전 2타점 결승타
KIA, 투타 조화로 9-1 대승



KIA타이거즈 새 외
국인 투수 손 앤더슨
(29)이 첫 실전 등판에
서 위력투를 선보이며
올시즌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앤더슨은 최고 153km의 직구를 비롯한
4개 구종을 구사하며 삼성 타선을 무력화
시켰다.

앤더슨은 1일 일본 오키나와현 온나손
아카마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 선발 등판해 2이닝 동안 19개
의 공을 던져 무피안타 무사구 3탈삼진
무실점의 '퍼펙트' 투구를 펼쳤다.

앤더슨은 이날 6타자를 상대로 최고
153km의 직구(10개)와 커브(2개), 슬라
이더(5개), 체인지업(2개)을 섞어던지
며 완벽하게 막아냈다.

특히 6타자 중 절반인 3명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위력적인 구위가 인상적이었



KIA 외국인투수 손 앤더슨

다.

앤더슨은 1회말 첫 타자 김현준을 우익
수 뜯공과 구자욱을 3루수 파울 뜯공으로
각각 잡은 뒤 이원석을 강속구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2회말에도 오재일을 삼진으로 돌려 세
운 뒤 강민호를 좌익수 뜯공, 강한울을 또



아도니스 메디나 KIA타이거즈 제공

삼진으로 잡고 등판을 마쳤다.

올시즌 KIA와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
한 앤더슨은 첫 실전 점검에서 와일드한
투구폼으로 완벽한 투구를 펼치면서 강력
한 1선발로 기대감을 키웠다.

KIA의 또 다른 외국인 투수 아도니스
메디나(27)는 아쉬운 투구를 펼쳤다.

메디나는 이날 앤더슨에 이어 3회 두 번
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2이닝 3피안타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메디나는 3회말 김동엽과 김태훈을 각
각 내야 뜯공과 내야 땅볼로 처리했다. 이
재현을 3루 땅볼로 유도했으나 3루수 김
도영의 실책으로 출루시킨 뒤 김현준에게
우전안타를 맞아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구자욱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 위기를
넘겼다.

4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메디나는 선두
이원석에게 빗맞은 안타를 내준 뒤 폭투
로 무사 2루 위기를 맞았다. 오재일과 강
민호를 모두 좌익수 뜯공으로 잡았으나
강한울에게 1타점 적시타를 내주며 첫 실
점했다. 이어 강한울의 도루를 저지하며
이닝을 끝냈다.

메디나는 이날 9타자를 상대로 직구
(2개)와 투심(17개), 슬라이더(3개), 커
터(7개), 체인지업(7개)를 고루 섞어 던
졌다. 36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
은 150km를 찍었다.

올시즌 총액 63만6000달러에 영입된
메디나도 첫 실전 점검에서 위력적인 구
위를 선보였으나 실점 위기를 넘기지 못
한 점은 아쉬웠다.

'특급 루키' 윤영철(19)은 5회부터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2이닝 1피안타 무실
점 호투를 펼치며 5선발 가능성을 높였
다.

윤영철은 7타자를 상대로 직구(15개)
와 커브(1개), 슬라이더(4개), 체인지업
(2개) 등 4개 구종을 구사했다. 투구수는
22개였고 직구 최고구속은 135km였다.상
하좌우를 구석구석 찌르는 제구가 인상적
이었다.

KIA는 이날 앤더슨, 메디나, 윤영철,
전상현, 이준영, 정해영으로 이어진 마운
드의 호투와 장단 15안타를 터뜨리며 응
집력을 발휘한 타선의 활약으로 9-1 대승
을 거뒀다.

1번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은 역
전 결승타를 포함 3안타 2타점 1도루 1득
점으로 맹활약했다.

7번 유격수 김규성도 3점 홈런을 포함
2안타 3타점 1도루 1볼넷으로 힘을 보탤
다.

3번 좌익수 김석환(2안타 1타점)과 5
번 1루수 변우혁(2안타 1타점), 9번 2루
수 홍종표(2안타 1타점)도 활발한 타격
과 안정된 수비로 팀 승리에 기여했다.

최동환 기자 cstone@jnilbo.com

광주FC 아사니·티모·김경민 '주간 베스트11'

2023 K리그1 1라운드



프로축구 광주FC의 K
리그1 복귀전 승리를 이
끈 아사니와 티모, 김경민
이 K리그1 1라운드 주간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

다.

아사니는 지난달 28일 한국프로축구연
맹이 발표한 '하나원큐 K리그1 2023' 1
라운드 주간베스트11 공격수 부문에 선
정됐다.

아사니는 지난달 25일 수원월드컵경기
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
서 후반 43분 정호연의 패스를 강력히 왼
발 발리슛으로 선제 결승골이자 K리그1 데
뷔골, 광주의 시즌 1호골을 기록했다.

또 후반 20분 교체 투입돼 빠른 스피드
와 부드러운 드리블로 공격 전개에 활기
를 불어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티모는 주간베스트11 수비수 부문에
뽑혔다. 티모는 상대의 매서운 공격과 압
박을 강력한 태클로 막아내며 무실점 승
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FC 아사니(왼쪽부터), 김경민, 티모

김경민은 주간베스트11 골키퍼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김경민은 4개의 환상적인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는 등 2022 K리그2
베스트 골키퍼다운 맹활약을 펼쳤다는 평
가다.

광주는 이날 3명의 선수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K리그1 복귀전을 1-0 승리로 거
두며 같은날 강원을 상대로 홈에서 2-0으
로 꺾은 대전하나시티즌과 K리그1 최초
승격팀 동시 승리라는 기록을 같이 썼다.

연맹은 주간베스트11에 서울 김주성,
대전 안톤(이상 수비수 부문), 서울 임상
협, 포항 오베르단, 대전 주세종, 울산 김
태환(이상 미드필드 부문), 대전 레안드
로, 포항 이호재(이상 공격수 부문)도 각
각 선정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FC, 2023 앱 베타버전 공개... 이벤트 진행

프로축구 광주FC가 2023 뉴 어플리케
이션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광주FC는 1일 2023시즌 K리그1 승격
에 맞춰 리뉴얼된 어플리케이션 베타 버
전을 팬들에게 공개하고 리그 개막에 맞
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뉴얼된 어플리케이션은 매치
와 이벤트, 게임, 커뮤니티 크게 네 가지
코너로 운영된다. 광주는 팬들의 앱 참여
율을 높이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점수를 모으면 원하는 기프트콘으로
교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치 코너는 경기 일정과 결과, 선수단

소개와 경기 기록 등을 깔끔히 정리했다.
이벤트 코너는 시즌 중 선제골 맞추기, 승
무패 맞추기, 응원 댓글달기 등으로 이뤄
지며 맞춤 때 마다 포인트가 적립된다.

베타 버전에서는 첫골, 첫도움, 승무패
맞추기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한정판 텀블러 및 볼펜, 광주FC 달
력을 증정한다. MOM 빙고맞추기, 선수
육성게임, 포인트 제도는 정식버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은 문화체육
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
받아 진행된다.

최동환 기자



김영록 지사, 전남드래곤즈 홈 개막전 시축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가 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드래
곤즈의 '하나원큐 K리그2 2023' 1라운드 홈 개막전 행사에서 시축하고 있
다. 전남드래곤즈는 이날 FC안양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안양의 조나탄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했다.

전남도 제공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2026년 월드컵 본선까지 계약
공격수 출신... 獨·美 감독 경험

파울루 벤투 감독의 후임으로 독일 출
신 위르겐 클린스만(58·사진) 감독이 한
국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을 맡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7일 축구 국
가대표팀 새 사령탑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3월부터 2026년 북중미 월
드컵 본선까지 약 3년 5개월이다. 연봉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은 조만간 클린스
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재임 기간동안 한국에 거주
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
음주 입국해 한국대표
팀 감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
다. 데뷔전은 오는 24
일 울산에서 열리는 폴
롬비아와의 친선경기다.

클린스만 감독은 현역 시절 독일을 대
표하는 세계적 공격수로 활약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했고, 1988
년과 1992년, 1996년에 열린 유럽선수권
대회(유로)에 연속 출전했다. 이어 1990
년부터 1994년, 1998년 월드컵에도 3회
연속 나섰다. 특히 1990년 이탈리아월드
컵과 1996년 유럽선수권에서 독일이 우
승을 차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1994년 미국월드컵에선 조별리그 최종
전에서 한국을 상대로 2골을 넣기도 했
다. 슈투트가르트, 바이에른 뮌헨(이상
독일), 인테르 밀란(이탈리아), 토트넘
(잉글랜드) 등의 클럽에 몸담았다.

1998년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는 2004
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대표팀 감독을
맡아 자국에서 열린 2006년 독일월드컵
에서 3위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는 미
국대표팀 감독으로 5년 동안 활동했다.
2013년 북중미선수권에서 정상에 차지했
고,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선 16강 진출
을 이끌었다. 독일과 미국 사령탑으로 재
임하던 시절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대표팀
과 한차례씩 대결해 1승1패를 기록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계약 체결후 대한축구
협회를 통해 "아시아컵과 2026년 월드컵
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